

# 독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지가 되어야 한다.



김제삼

(주)우성사료 사료판촉과

**영** 어 단어가 막혔을 때 사전을 찾아보듯 의문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. 따라서 사양관리나 질병관리 등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.

큰 Item을 선정해 놓고 연간 그 Item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다루거나 특집형식을 빌어 한 Item에 대해 집중적이며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.

음식 중에는 그 특유의 맛이 있어 그 음식이 아니면 그 맛을 느낄 수 없는 음식이 있다. 전문지에도 특유의 맛이 있어야 한다. 물론 그 맛은 독자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. 축산인들이 항상 책을 가까이 할만큼 시간적·정신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. 따라서 그 내용이 읽어서 쉽게 이해가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.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

내용으로 일괄하다 보면 그 내용이 딱딱하고 판에 박힌 내용이 되기 쉽다.

또한 얼마간의 노력으로 다른 서적이나 잡지에서라도 찾아볼 수 있는 평이한 내용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. 따라서 이론적인 바탕 위에 행동지침식의 사양방법이나 사양시험결과가 제시되었으면 한다.

많은 전문지의 내용이 “해야 한다”는 식으로 일괄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“나도 해야겠다”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. 실패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한다.

항상 축산인들의 지식적·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온 「월간양계」의 발전과 아울러 더 큰 힘이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.

**양계**